

이재명표 선대위 오영훈·윤건영 합류... '원팀' 쇄신 속도

(이낙연 前 대표 비서실장) (文 정부 초대국정상황실장)

측근 위주 선대위 경계
계파 초월한 통합 메시지
초·재선 의원 전진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팀' 선거대책위원회로 쇄신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각각 선대위에 합류하면서다.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 위주의 선대위 구성은 경계하고, 민주당에 통합 메시지를 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오영훈 의원을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정무실장에는 윤건영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원팀 선대위의 정신에 따라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인선"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고 수석대변인은 "참신하고 유능한 초·재선 의원들은 전진 배치해 스마트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재선인 오 의원은 이낙연계 인사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수석대변인이었고, 조선인 윤 의원은 문 대통령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점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고 수석대변인은 "정무실은 비서실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윤 의원 혼자 비서실과 별도로 이 후보를 보좌한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

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여러 가교 역할도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고, 당내 주류에 속한 윤 의원이 청와대뿐 아니라 '원팀 선대위' 운영에 있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의원이 이를 의식한 듯 "전국을 다니며 만나겠다. 민주당에 대한 여러 질책과 비판, 충고와 당부

모두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정무실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은 이재명 정부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 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배경을 '이 전 대표의 지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고 수석대변인은 "오 의원이 이 전 대표와 오찬하며 비서실장 제안에 대해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가서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지난 26일부터 3박 4일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외곽에서 지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오 의원도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비서실장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리이고, 선대위 혁신 과정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후보 당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 또한 전날(27일) 이 전 대표와 호남 일정 동행이 무산된 데 대해 "다음에는 같이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갈등이 컸던 탓에 '원팀' 행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후보가 이날 광주 광산구 송정 5일 시장에 방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를 지지한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깨시민당)'과 이 후보 지지자 간 충돌이 발생한 탓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깨시민당 관계자들은 이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고, 이 후보 지지자 측은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목살도 잡으며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尹 후보, 직속 기구 청년위원회·청년본부 출범

"차기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 배치"

직접 위원장 맡아 청년층 소통
"대한민국 변화시키는 출발점
청년들 축제가 되는 선거 기획"



윤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후보 직속 기구로 청년위원회와 청년본부를 출범했다. 윤 후보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로 명명한 기구에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취약점으로 지적된 청년층 공약에 힘쓸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소재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의 표심을 잡으려고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 세력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지난 경선 때부터 기존에 해오던 것은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하면 우리 청년들이 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으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를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차

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서 단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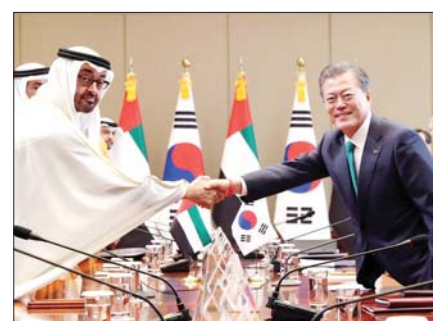
이어 윤 후보는 "이렇게 모인 것이 이제 선거운동 일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출발이라고 생

각하시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십시오"며 "국민의힘 선대위도 총괄본부와 각 본부들, 그리고 다양한 위원회들이 여러분을 청년보좌역으로 대폭 기용해가시고, 이번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 뜻있는 청년들 축제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靑 "천궁 2' UAE 수출, 12년 노력 총결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SNS서 소회
"문재인 정부 '진심외교' 열매 맺어"



지난 2019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의 '한-UAE 정상회담' 당시 모습. /청와대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천궁 2'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8일 "지난 3개 정부 12년간 노력의 총결산이자 '비 온 뒤 땅을 굳어지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진심외교'가 더해진 열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두고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6)-UAE에 천궁2를 수출하게 된 원동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소회를 밝혔다.

SNS에 올린 글에서 박 수석은 먼저 문 대통령의 반응부터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 역대급 수출, UAE와 천궁2 4조원 계약 임박'이라는 기사와 관련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 수주가 아크부대 파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방협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방과 방산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UAE 왕세제 방한 시에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발언 소개에 이어 현 정부 들어 UAE와 외교 관계 복원 노력도 전했다. 전 정부에 있었던 3년간 외교 공백과 관련 UAE 측 의구심을 해소하는 '첫걸음'부터 시작해, 현재의 결과가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SNS 글에서 박 수석은 '중동 외교는 시스템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대통령 취임 후 중동 국가 정상과의 첫 번째 통화가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의 통화였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후 양 정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와 같은 메시지를 교환했고, 정서적 교감도 무르익은 가운데 2018년 3월 24~27일 만남이 이뤄진 내용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3년 여간 정상회담 공백 끝에 문 대통령이 UAE에 공식 방문한 데 대해 "마치 오랫동안 어떤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의 만남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UAE 간 고위급 교류를 ▲정상회담 2회 ▲정상통화 3회 ▲축전·조전·친서교환 5회 ▲특사교환·통화 6회 ▲외교·국방 회의(2+2) 3회 ▲외교장관 특별전략대화 3회 등으로 정리한 뒤 "가히 '외교의 꽃'이 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성과 진심"은 개인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국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바탕이 되고, 열매의 가장 튼실한 씨앗임을 문재인 정부의 UAE 외교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李 후보, 전제적이고 폭력적 심성 가져"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기자회견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 규정"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전제적(專制的)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도자의 조건을 열거했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높은 의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

우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의 정치 지도자는 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과 가치 도덕과 상식으로 국민을 보다 자유롭게하고 국민이 스스로 그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후보에게는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며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